

## 가계부 기록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on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손지연(Jiyeon Son)<sup>1</sup>, 박주영(Jooyung Par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onsumer Policy Research, Korea Consumer Agency,

<sup>2</sup>Departmen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levels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among Korean households and to reveal the effect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on financial soundness of households. The 2014 Consumer Empowerment Index of the Korean consumer agency, which includes the surveyed results of 1,000 individuals, was analyzed as a secondary dataset.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d during the study. First, 25.9% of consumers replied that they were keeping financial records. Factors associated with keeping financial records were gender and income. Women were more likely to keep financial records than men. Also, inco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keeping financial records. Second, levels of meeting percentages of financial ratios were highest in the debt to income ratio, which was 81.5%, and lowest in the investment ratio, which was 14.5%. Furthermore, 52.6% met the savings ratio, 40.6% met the emergency funds ratio, 24.6% met the retirement savings ratio. Meeting a percentage of the savings ratio did not fluctuated for 16 years, although the debt to income ratio has decreased around 15% since 1998. Third,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meeting percentages of financial ratios. Magnitudes of effects ranged between 1.4-1.8 odds, which were as much as the income effects. In summary, effects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were evidenced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should be stressed in financial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주제어(Key words) : 가계부 기록의 효과(Effect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가계재무비율(Households' financial ratios), 재무건전성(financial soundness)

#### I. 서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의 양적 팽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출에 대한 자기 통제를 높이는 전략으로서 가계부 사용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는 “가계에서 사용한 지출 내역에 대해 지출 집행 이후 기록하는 장부”(FPSB Korea, 2015)로,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220권에 불과하던 가계부 판매량이 2013년에는 3,960권, 2014년에는 14,855권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인 2015년에도 9,937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계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Kwon, 2015, December 16). 스마트폰이 보급된 2009년 이후에는 책이나 노트 형태를 빙어 수기로 작성하는 형태의 가계부 외에도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와 연결된 스마트폰 애플리케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Jooyung Park, Departmen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34134, tel: +82-42-821-6844, E-mail: jooyungpark@cnu.ac.kr

이션 형태의 가계부나 온라인 가계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온라인 소비자조사 업체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19세 이상 59세 미만의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실시한 「Household account book and price research」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 작성자의 42.6%가 노트 형태의 가계부에 수기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자 가계부를 사용하는 비율(31.3%)과 스마트폰 앱 형태의 가계부를 사용하는 비율(26.2%)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 되어 있는 전자가계부로는 SK Telecom의 '돈 버는 가계부', 네이버 가계부, 모네타 미니가계부 등 30여종이 있으며,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가계부의 기능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를 쓰는 소비자의 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시된 전자가계부의 부가기능으로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비슷한 연령과 수입을 가진 사람들과 나의 지출을 비교해주는 기능이나, 가장 많이 지출한 날짜, 요일, 시간대를 분석하는 기능 등이 있다. 이처럼 전자가계부를 사용하면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그래프를 통한 비교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등 부가적인 편리성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방식의 가계재무관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가계부 기록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봄직 하다.

가계부 기록 행동은 기본적으로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더 많이 저축하는데 도움이 되며, 가계 재무설계 과정에서의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PSB Korea, 2015). 그러나 가계부 기록 행동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데, 이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가계부 기록 행동의 단독 효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예산수립', '목표 설정', '가계부 기록' 등 일련의 재무관리행동 전반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재무관리행동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주로 R. E. Deacon and F. M. Firebaugh(1988)의 체계론을 이론적 개념들로 활용하고 있으며, 가계부 기록 행동을 비롯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투입, 변환, 산출의 3단계 가운데 '변환' 과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K. Cha, 2007; K. Huh, & S. Han, 2005; M. Jeong, S. Kye, & H. Kang, 2008). 따라서 이를 연구를 통해서 가계부를 쓸 때 가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들어 S. Lee(2014)과 Y. Sung(2016) 등에서 가계부 기록 행동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으나 S. Lee(2014)의 경우, 일본의 미혼 독신 가계만을 조사 대상자로 삼고 있어 그 연구결과를 국내에

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Y. Sung(2016)에서는 가계부 작성의 효과에 관한 주관적 평가와 감정, 충동구매 행동 등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가계부 작성 여부에 따라 가계의 재무적 건전성이 영향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가계부 기록 행동과 객관적인 가계재무상태 사이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 기록 행동'을 여타의 재무관리행동에서 분리하여 그 선행요인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계부 기록 행동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부 기록 행동과 가계 재무상태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으며, 가계 재무상태는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가이드라인 달성을 여부로 측정하였다. 가계부 기록 행동이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가계부 사용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가계부 관련 선행연구

#### 1) 가계부 기록의 기대효과

가계의 소비지출에 관하여 규범적인 입장(normative approach)를 취하는 것은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계의 재정적 운영이 초기 단계일 경우, 가계부를 사용하여 가계수지를 관리하는 행동은 가계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 M. Park, S. Lee, and M. Bae(1998)은 가계부는 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수입과 지출에 큰 변화가 발생하여 가계가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일수록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때에도 무조건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식비, 교통비, 통신비, 대출, 적금, 보험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 수립과 가계부 관리가 병행하여 이루어질 때 가계부를 통한 효율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기제인 가계부는 가계 재무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수집의 도구"로서도 기능하는데, 특히 '예산 수립'과 '현금흐름표 작성'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산수립 단계에서 소비자는 과거의 소비지출 자료를 파악하고, 모든 소득 원천으로부터 기대소득을 추정하여 소비지출의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일정 기간 동안 가계 내에서 발생한 현금의 유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부는 과거의

소비지출 자료와 기대소득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가계부는 '자산부채상태표'와 함께 가계의 재무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인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에도 급여와 각종 소득 및 저축, 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계 재무설계 과정에서 매우 요긴하게 활용된다(FPSB Korea, 2015).

이 밖에도 S. Yoon(2016)은 가계부를 기록하면 소비에 대한 반복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만큼 무분별한 소비지출 습관이나 낭비벽을 교정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가계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도맡아 돈 관리를 하더라도 그 지출 내역에 대하여 가계 구성원 간의 논의가 가능해지므로 가계의 재정적 요구에 관한 정보가 가계 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년 전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므로, 가계부 사용을 통한 자기점검 기제를 작동할 유인이 더 증가하였다고 하겠다.

## 2) 가계부 기록 현황과 영향 요인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가계부 기록을 더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수행된 국내외 조사 결과에서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소비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소득과 연령에 따른 가계부 작성자의 비율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들 연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부를 기록하는 인구 비율을 도출한 연구로, 온라인 소비자조사 업체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실시한 「Household account book and price research」에서는 매해 조사 대상자의 33-39%가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가운데 가계부를 쓰는 소비자의 비율은 10명 가운데 3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40.8%와 남성의 26.4%가 가계부 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남성보다는 여성 가운데에서 가계부 작성 경험 수준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39.6%, 40대 35.2%, 20대 31.6%, 50대 28.0%의 순으로 30대와 40대의 가계부 작성 수준이 50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가구원이 2인(45.9%)인 가계의 가계부 작성 경험 수준이 다른 가계에 비해 높았다(Macromill-Embrain Contents Operation Division, 2015).

J. Son, & K. Lee(2014)의 「Consumer Empowerment

Index of Korea」에서는 자료소비자의 가계부 기록 행동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나는 가계부(지출내역)을 기록한다"는 문항에 관하여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공익재단법인가계경제연구소가 일본의 20~30대 미혼 1인 가구 1,255명을 대상으로 2010년 조사한 「Single person households among young adults and households' account book: Insights from Internet survey」의 결과에서 조사 대상자의 38.2%가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K. Sakamoto, & J. Omogawa, 2012). J. Son, & K. Lee(2014)의 조사 결과에서는 여성의 31.4%와 남성의 20.3%가 지출내역(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30.8%, 40대 29.6%, 20대 24.6%, 30대 22.2%, 60대 22.1%의 순으로 30대보다 50대의 가계부 작성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생애주기별로는 독신기(36.0%)와 신혼기(29.6%)의 응답수준이 다른 기간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소득수준 별로는 중간소득계층 이상(28.4%)과 고소득계층(27.9%)의 가계부 작성행동 수준이 저소득계층(16.7%)보다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일본의 20-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S. Lee(2014)에서는 여성의 42.3%, 남성의 35.2%가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비해 남성 가운데 가계부를 기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의 39.2%, 30대의 37.2%가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특성에 따른 가계부 작성행동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연평균 수입이나 부채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금융자산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만엔 이상인 집단에서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기입하는 비율은 43.5%였는데, 이는 금융자산이 100만엔 미만인 집단 내 가계부 기록자의 비율 33.5%보다 높은 것이다. 예산수립 행동의 경우에는 연평균 소득 300만엔을 기준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예산수립 행동이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연구로는 조지아 주에서 무작위 확률표본 추출 방식으로 120쌍의 신혼부부를 표집하여 가계부 기록 등의 가계수지 관리 행동을 분석한 D. D. Godwin(1992; 199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가계부 기록, 소비지출의 모니터링, 예산수립 등의 재무관리행동이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가계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가족원의 연령,

Table 1. Types of Households' Financial Ratios

	cash flow Indices	liabilities to asset indices
financial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usehold balance index</li> <li>- expenditure to income ratio</li> <li>• debt to income index</li> <li>- total debt repayment ratio</li> <li>- expenditure debt repayment ratio</li> <li>- housing debt repayment ratio</li> <li>• risk preparedness index</li> <li>- emergency fund ratio</li> <li>- insurance premium rati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bt to asset index</li> <li>- debt to asset ratio</li> <li>- housing debt to asset ratio</li> </ul>
financial 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vings index</li> <li>- savings to income ratio</li> <li>• investment index</li> <li>- investment to savings ratio</li> <li>• retirement preparedness index</li> <li>- retirement savings to savings rati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quidity index</li> <li>- liquid asset to total asset ratio</li> </ul>

남편인 경우 재무관리 교육 경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 자기통제감 등이 가계부 기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부 기록 행동을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소득과 연령별로 누가 더 가계부를 쓰는지에 대하여 일치하는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 결과의 불일치성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계부 작성행동 사이의 관계성을 검증한 실증연구가 양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과 고용상태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계부 기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탐색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 2. 재무건전성의 평가

### 1) 가계재무비율을 통한 재무건전성의 평가

가장 단순하게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한 가지 요인의 절대 수준을 통하여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가운데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하여 재무비율을 구성하면 재무적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 등 가계 재무상태의 보다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R.Griffith(1985)가 경영 현장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자산 상태의 평가 잣대로 사용되던 재무비율을 미 연방준비위원회(The Federal Reserve Board)의 가계재무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자료에 적용하여 가계 재무상태 진단의 도구로 도입한 이래 미국에서 기 개발된 재무비율들은 한국가구패널, 노동패널 등의 데이터에 적용되어 국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된 바 있다(K. Huh & S. Han, 2005; Sung et al., 2004). 이에

더하여 한국 가계의 실정에 적합한 재무비율의 준거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노력 또한 꾸준히 경주되어 왔다(H. Choe et al., 2003; S. Yang et al., 2013). 가계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비율은 그 평가 대상에 따라 가계 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과 자산-부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양분할 수 있다. 가계수지지표, 부채상환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노후준비지표 등은 가계수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하며, 부채부담지표와 유동성지표 등은 자산부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부 기록이 가계의 재무적 운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으므로 가계 재무비율 가운데에서도 가계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 부채상환지표, 총 비상자금지표, 총 저축성향지표,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 등을 가계부 기록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계 재무상태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H. Choe et al.(2003)에서는 가계가 재무관리 과정에서 추구하는 일차적인 목표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장래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가계수지지표도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와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고, 소득 단절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등 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가계 재정관리의 1차 목표로 선정한 H. Choe et al.(2003)의 입장을 수용하여 비상자금지표와 부채부담지표를 “안정성지표”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저축성향지표와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를 바탕으로 가계

Table 2. Definitions of Households' Financial Ratios

Name of the Index	Ratios	Guidelines	Citations
Ratio 1: debt to income ratio	monthly debt repayment/monthly income	<0.25	H. Choe et al.(2003)
		≤0.3	S. Yang et al.(2013)
Ratio 2: emergency fund ratio	liquid asset/monthly consumption expenditure	1<	H. Choe et al.(2003)
		4~6times	S. Yang et al.(2013)
Ratio 3: savings ratio	annual savings/annual gross income	0.3≤	S. Yang et al.(2013)
		0.1<	H. Choe et al.(2003)
Ratio 4: investment to savings ratio	financial investment asset/annual savings	0.3≤	S. Yang et al.(2013)
	investment assets/total assets	0.05<<0.1	H. Choe et al.(2003)
Ratio 5: retirement savings to savings ratio	savings for retirement/total savings	0.5≤	S. Yang et al.(2013)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성 지표”를 구성하였다. 지표의 분류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 2)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H. Choe et al.(2002)와 S. Yang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준거기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 가계의 현 상황에 적합한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지표의 계산방식과 준거기준은 <Table 2>와 같다.

부채부담지표는 유량적인 측면에서 부채부담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의 크기로 평가한다(H. Choe et al., 2003). 이 때 부채상환액은 소비생활을 위한 부채와 거주주택마련을 위한 부채 등 부채의 용도를 막론하고 부채상환을 위해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준거기준은 대략 0.25~0.3 내외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감은 소득대비 월 부채 상환액이 0.2인 지점에서 급격히 상승하며(E. Chae, & Y. Sung, 2000), 부채부담이 0.25 초과시 저축이 불가능하고, 0.4 초과시 소비지출구조에 왜곡이 발생(H. Choe, 2001)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상자금지표는 실직 등의 상황으로 인해 가계로의 소득 유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활용한 생활의 유지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통해 가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소비지출 금액 대비 금융자산의 크기로 평가하며 준거기준은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H. Choe et al.(2003)에서는 1 이상, R. Griffith(1985)에서는 2~6, J. Yang(1997)과 Y. Choi & H. Choe(1998)에서는 3 이상으로 하였다.

저축성향지표는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소득 대비 저축액의 비중을 통해 평가한다. 준거기준으로는 월간 혹은 연간 소득의 최소 10~30%를 저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S. Yang et al.(2013)에서는 20

대 50% 등 연령대에 따라 상이한 준거기준을 추천하고 있기도 하다. 총 저축성향지표를 충족하지 않는 가계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커서 저축을 아예 하지 않는 적자가계와 지나치게 적은 금액(소득의 10% 미만)을 저축하는 가계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는 총저축 대비 금융투자저축의 비율을 통해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준거기준으로는 총 저축액의 30%를 금융투자저축에 할당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S. Yang et al.(2013)에서는 “저금리 기초의 기속화로 인해 가계의 전전한 투자행동을 견인 할 필요”에 의해 투자성향지표를 새롭게 제안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노후대비저축성향지표는 총저축 대비 노후대비 목적의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노후대비라는 재무목표의 달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 때 노후대비 목적의 저축은 금융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노후대비를 위한 목적형 저축에 지출하는 연간 총액을 지칭한다. S. Yang et al.(2013)에서는 총 저축액의 50%를 노후대비저축에 할당하는 방안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H. Choe, Y. Sung, S. Joo, & K. Cha(2013)의 실증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금액이 100일 때 저축성 보험 등의 노후준비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8%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 Yang et al.(2013)은 “노후준비라는 장기적 재무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은퇴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후대비저축성향지표를 제안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 3. 재무관리행동과 재무상태의 관계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의 재무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전 과정을 ‘재무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재무관리행동을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M. Jung(2007)은 “가계의 현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가족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달성을 위해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K. Cha(2007)은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단기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한 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들 정의들은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이 목표설정, 계획수립, 실행, 검토, 수정 등 일련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 결과를 기록하는 가계부 기록 행동이 재무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부 기록 행동을 재무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을 파악한 K. Cha(2007)은 “가계부 혹은 금전출납부를 쓰고 있다”는 문항 등에 대한 응답수준을 바탕으로 ‘합리적 관리형’ 소비자를 유형화하였다. S. Jeong & Y. Jang(2007)은 재무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으로 투자관리행동, 소득지출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의 4개 영역을 선정하였으며, 가계부 기록행동은 이 가운데에서 ‘소득지출 관리행동’에 해당한다. D. Cho, S. Yang, and M. Bae(2007)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을 ‘재무계획’과 ‘재무수행’으로 구분하였다. 가계부 기록은 이 가운데 “지출관리”이자 “재무수행”에 해당한다.

가계부 기록행동의 효과에 천착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발견되지만, 가계부 기록행동을 비롯한 재무관리행동 전반의 효과성은 다방면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종속변수가 주관적 지표인 연구들과 종속변수가 객관적 지표인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관적 지표를 통해 재무관리행동의 효과를 고찰한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경제적 복지감, 주관적 소비수준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적극적인 실천이 주관적 재정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며,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재무관리행동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J. Im, M. Cho & Y. Lee, 1998; H. Kim, 2000; K. Kim, M. Park & W. Jeong, 2002). 반면, 재무관리행동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재무비율 등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재무관리행동과 객관적 지표 사이의 관련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D. Cho, S. Yang, and M. Bae(2007)에서는 일련의 “재무관리 수행” 행동이

객관적 재무건전성, 즉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되지 않은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된 S. Kye and M. Jeong(2007)에서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계획 수립의 융통성, 자원 활용, 신기술과 정보 습득 등 도시 주부의 재무관리행동이 변화지향적일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때 가계의 객관적 재무건전성은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또한 W. Jeong and D. Hwang(2002)에서도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수행이 총 위험(시장위험, 거래상대방위험, 기초위험, 신용집중위험 등) 대비 가용순자산액으로 파악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가계부 기록 행동을 비롯한 일련의 가계 재무관리행동이 소비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가계의 가계부 기록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재무건전성 달성을 위한 가계부 기록 행동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성인 소비자의 소비자역량 수준에 관한 진단적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사한 「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는 소비자역량의 3대 대영역으로 재무관리역량, 거래역량, 시민역량을 선정하고, 총 81개 문항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지식, 태도, 실천 수준을 조사한 것이다. 「2014 한국의 소비자역량지표」 조사 자료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26 일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본 추출 방식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 비례를 할당 표본 추출방식이며, 조사의 신뢰수준은

Table 3.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s	Categories	Freq	%(MOI**)
sex	male	493	49.3(49.5)
	female	507	50.7(50.5)
age	20s	179	17.9(16.3)
	30s	194	19.4(18.6)
	40s	216	21.6(21.5)
	50s	198	19.8(20.2)
	60s	213	21.3(23.4)
	single	224	22.4
marital status	couple	758	75.8
	etc	18	1.8
	high school	459	45.9
edu levels	some college	166	16.6
	bachelors	362	36.2
	graduate school	13	1.3
residential area	capital	207	20.7
	metropolitan	256	25.6
	small town	537	53.7
employment status	employed	402	40.2
	self employed	276	27.6
	unemployed	322	32.2
income class	low	66	6.6
	middle-low	241	24.1
	middle-high	349	34.9
	high	344	34.4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운데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조사 결과로,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임

95%±3.1%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3>와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49.3%, 여성이 50.7%로 행정자치부가 2014년 말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 상의 성비(남성 49.5%, 여성 50.5%)와 유사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3.4세로 최소값은 20세, 최대값은 79세이며, 구간별로는 20대가 17.9%, 30대가 19.4%, 40대가 21.6%, 50대가 19.8%, 60대 이상이 21.3%를 차지한다. 혼인상태는 미혼 22.4%, 기혼 75.8%, 기타 1.8%로 기혼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5.9%, 대학교육 경험자가 16.6%, 대졸자 36.2%, 대학원교육 경험자가 1.3%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20.7%, 광역시 지역이 25.6%, 기타 소도시 지역이 53.7%였다. 고용상태는 임금근로자가 40.2%, 자영업자가 27.6%였으며,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무직 상태도 32.2%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Table 4. Measurements of Households' Financial Soundness

indices	measurements
Ratio 1	More than 30% of my monthly income is used for the debt repayment
Ratio 2	I can handle at least 3 months of households' consumption expenditures with current emergency funds
Ratio 3	I save at least 10% of my monthly income, including pension insurance premiums and financial investments,
Ratio 4	At least 30% of my monthly savings are allocated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including funds, stocks and derivatives
Ratio 5	At least 30% of my monthly savings are allocated for the retirement

평균 소득은 373.6만원, 중위소득은 350만원이었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2014년 4/4분기 기준 중위소득 3,571,740원<sup>1)</sup>의 50% 미만을 저소득층, 50~150%를 중위소득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했을 때, 저소득층이 6.6%, 하위 중간소득층이 24.1%, 상위 중간소득층이 34.9%, 고소득층이 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회인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성인인구의 성별·연령비율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주로 소득수준이 중간소득계층 이상인 소비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계부 기록 행동의 일반적인 수준과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계부 기록 행동에 대한 영향요인과 재무건전성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변수의 측정방법

독립변수인 가계부 기록 행동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지출내역(가계부)를 기록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의 1점에서 “매우 아니다”의 5점으로 배점화하여 역순으로 다시 코딩하였다. 역코딩한 변수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계부 기록 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계부를 기록하는 소비자와 기록하지 않는 소비자를 2분하기 위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가계부를 쓰는 소비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Table 4>에서 제시된 다섯 개의 재무비율로 측정하였다.

1) 2014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인구의 성별·연령비를 백분율로 환산한 것임.

Table 5. Factors associated with keeping financial records

	Keeping financial records		
	B	S.E.	Exp(B)
constant	-4.502***	1.155	.011
male(ref.)			
female	.724***	.165	2.064
age	.007	.009	1.007
single h'h(ref.)			
couple h'h	-.041	.287	.960
# of Children age under 18	.048	.111	1.050
edu	.033	.097	1.034
employees(ref.)			
self-employed	.316	.189	1.372
unemployed	-.140	.192	.869
log income	.448**	.170	1.564
-2 Log likelihood		1111.300	
Nagelkerke R-sq		.047	
Chi-sq		32.717	

\* $p < .05$ , \*\* $p < .01$ , \*\*\* $p < .001$

## VI. 연구결과

### 1. 가계부 기록 행동의 일반적 경향과 영향요인

#### 1) 가계부 기록 행동의 일반적 경향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가계부를 기록하는 비율은 25.9%, 5점 만점에 평균 2.74점(표준편차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 Cho, S. Yang, and M. Bae(2007)의 조사에서 가계부 기록 행동 수준이 5점 만점에 평균 2.71 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지출내역(가계부)를 기록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25.9%,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7%,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4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계부 기록 행동의 수준은 5점 만점에 3점에 해당하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소비자의 절반 정도가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2) 가계부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의 가계부 기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미성년 자녀수, 교육수준)과 경제적 특성(고용상태,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가계부 기록행동(4=그렇다, 5=매우 그렇

다)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적 특성 가운데 가계부 기록 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계부를 쓸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나 결혼상황, 미성년 자녀 수, 교육수준 등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특성 가운데 가계부 기록 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소득’이었으며, 고용상 지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에 가계부를 쓰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소비자 특성별 재무건전성

소비자 특성별 재무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재무비율(부채부담지표, 비상자금지표, 저축성향지표, 금융투자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을 충족하는 소비자의 비율을 소비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5 개 재무비율 가운데 달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안정성지표에 속하는 ‘부채부담지표(81.5%)’였으며, 가장 낮은 것은 성장성지표에 속하는 ‘금융투자성향지표(14.7%)’였다. 부채부담지표의 경우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여신서비스가 허용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가계의 부채부담지표 달성 수준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가

Table 6. meeting %s of financial ratios acro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s	Categories	Meeting Ratio 1	Meeting Ratio 2	Meeting Ratio 3	Meeting Ratio 4	Meeting Ratio 5
		debt to income ratio	emergency fund ratio	savings ratio	investment to savings ratio	retirement savings to savings ratio
total	meeting %	81.5%	40.8%	52.6%	14.7%	24.8%
	female	81.9%	41.4%	57.0%	13.8%	24.1%
sex	male	81.1%	40.2%	48.1%	15.6%	25.6%
	chi-sq	.085	.164	7.993**	.654	.299
	20s	95.0%	30.2%	39.1%	10.1%	12.8%
	30s	75.8%	39.7%	62.9%	20.6%	20.6%
age	40s	70.8%	41.7%	58.8%	16.2%	33.3%
	50s	75.8%	45.5%	57.6%	17.2%	28.3%
	60s	91.5%	45.5%	43.7%	9.4%	26.8%
	chi-sq	60.664***	12.301*	33.423***	14.643**	25.688***
	single	94.2%	34.8%	42.4%	12.5%	17.4%
marital status	couple	77.4%	42.6%	55.8%	15.6%	27.3%
	etc	94.4%	38.9%	44.4%	5.6%	11.1%
	chi-sq	34.233***	4.373	12.930**	2.520	10.925**
	0	86.5%	41.7%	49.4%	13.7%	24.0%
	1	79.2%	39.9%	52.0%	15.0%	27.7%
# of children	2	69.2%	39.5%	64.3%	17.3%	24.9%
	3	46.2%	30.8%	46.2%	23.1%	23.1%
	chi-sq	40.353***	.929	12.953**	2.267	1.038
	high school	84.1%	41.6%	52.1%	11.8%	25.9%
	some college	76.5%	41.0%	57.2%	17.5%	23.5%
education level	bachelors	80.7%	39.2%	51.7%	17.1%	23.5%
	graduate school	76.9%	53.8%	38.5%	15.4%	38.5%
	chi-sq	5.146	1.414	2.650	5.875	2.103
	employed	77.9%	41.0%	54.0%	17.2%	23.9%
employment status	self-employed	79.7%	47.8%	58.0%	15.6%	32.6%
	unemployed	87.6%	34.5%	46.3%	10.9%	19.3%
	chi-sq	12.006**	10.989**	8.670*	5.885	14.516**
	low	96.3%	33.9%	31.2%	8.3%	19.3%
	middle-low	81.0%	39.8%	55.1%	15.2%	26.9%
income class	middle-high	77.1%	39.2%	53.9%	13.3%	21.0%
	high	83.0%	53.3%	59.3%	22.2%	33.3%
	chi-sq	20.874***	11.419*	23.638***	10.387*	10.807*
	disagree	84.3%	32.0%	43.6%	8.3%	20.2%
financial records	undecided	83.3%	40.1%	54.9%	14.8%	22.6%
	agree	74.5%	57.9%	67.2%	26.6%	35.5%
	chi-sq	11.421**	46.896***	38.357***	45.439***	22.027***

\*p < .05, \*\*p < .01, \*\*\*p < .001

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다섯 가지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자 1,000명 가운데 2.3%에 불과하였으며, 4개를 충족하는 소비자가 11.4%, 3개가 24.5%, 2개가 25.7%, 1개가 32.4%

였다. 단 한 개의 재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비자도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재무건전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재무건전성은 저축성

Table 7. Effects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on households' financial security

variables	Meeting Ratio 1 (debt to income ratio)			Meeting Ratio 2 (emergency fund ratio )		
	B	S.E.	Exp(B)	B	S.E.	Exp(B)
constant	5.679***	1.403	292.792	-5.650***	1.056	.004
male(ref.)						
female	-.034	.199	0.966	.076	.152	1.079
age	.014	.011	1.014	.029**	.008	1.030
single h'h(ref.)						
couple h'h	-1.782***	.402	0.168	-.300	.260	.741
# of children	-.227	.120	0.797	-.011	.103	.989
edu	-.049	.109	0.953	.076	.090	1.079
employees(ref.)						
unemployed	.593*	.242	1.810	-.278	.178	.757
self employed	.243	.206	1.275	.114	.172	1.121
log income	-.471*	.215	0.625	.478**	.153	1.613
financial records	-.199*	.081	0.820	.455***	.066	1.576
-2 L. L.		869.339			1265.008	
Nagelkerke R-sq		.137			.113	
Chi-sq		88.443			87.236	

\*  $p < .05$ , \*\*  $p < .01$ , \*\*\*  $p < .001$

향지표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57.0%)보다 남성(48.1%)인 응답자 가운데에서 저축성향지표를 충족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재무비율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부채부담지표의 달성은 여신 시장 이용이 활발한 40대(70.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저축성향지표의 달성은 20대(39.1%)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의 달성은 60대(9.4%)에서 가장 낮았고,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의 달성은 20대(12.8%)에서 가장 낮았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지표,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가계의 부채부담지표 달성수준(77.4%)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저축성향지표의 달성수준(55.8%)이 높았으며, 노후대비저축성향지표(27.3%)의 달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 내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서는 부채부담지표와 저축성향지표 달성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녀 수는 최대 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자녀 수가 3명인 경우 부채부담지표의 달성수준(46.2%)이 타집단에 비해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저축성향지표의 달성수준(46.2%)도 낮았다. 고용상태별로는 무직인 경우,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인 경우에 비해 비상자금지표의 달성수준(34.5%)이 낮았고, 부채부담지표의 달성수준(87.6%)이 높았으며, 저축성향지표의 달성수준(46.3%)이 낮았고,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의 달성수준(19.3%)이 낮게 나타났

다. 소득계층별로는 모든 재무비율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부담지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비율에서 중간소득계층 이상에 비해 달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재무비율 달성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계부 기록 행동의 수준에 따른 재무건전성 현황을 살펴보았다.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을 때, 가계부 기록을 한다(4점, 5점)고 응답한 소비자집단의 경우 부채부담지표를 제외한 4개 재무비율(비상자금지표, 저축성향지표, 금융투자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지표)의 달성수준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 기록을 열심히 하는 소비자의 경우, 비상자금 지표의 달성수준은 57.9%로, 가계부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달성수준 32.0%보다 높은 편이었다. 또한 가계부 기록을 하는 소비자의 저축성향지표 달성 수준은 67.2%, 금융투자성향지표 달성수준은 26.6%,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 달성수준은 35.5%로, 모두 가계부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달성 수준에 비해 크게 높았다.

### 3. 가계부 기록행동과 재무건전성

재무건전성의 대리변수인 재무비율의 달성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

Table 8. Effects of keeping financial records on households' financial growth

variables	Meeting Ratio 3 (savings ratio)			Meeting Ratio 4 (investment to savings ratio)			Meeting Ratio 5 (retirement savings to savings ratio)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constant	-3.999***	1.024	0.018	-5.190***	1.461	.006	-6.243***	1.194	.002
male(ref.)									
female	.419**	.151	1.520	-.209	.209	.812	-.021	.172	.979
age	-.005	.008	0.995	-.011	.012	.989	.031**	.010	1.031
single h'h(ref.)									
couple h'h	.447	.257	1.563	.662	.375	1.939	-.075	.301	.928
# of children	.094	.102	1.098	-.064	.138	.938	.086	.115	1.090
edu	-.073	.088	0.930	.138	.122	1.148	.087	.100	1.091
employees(ref.)									
unemployed	-.364*	.173	0.695	-.314	.249	.730	-.245	.208	.782
self employed	.117	.172	1.124	-.171	.229	.843	.231	.186	1.259
log income	.507**	.151	1.661	.293	.224	1.340	.462**	.174	1.587
financial records	.364***	.065	1.439	.569***	.088	1.767	.309***	.072	1.361
-2 L. L.	1295.650			774.089			1064.121		
Nagelkerke Rsq	.112			.104			.081		
Chi-sq	87.939			60.851			56.134		

\*  $p < .05$ , \*\*  $p < .01$ , \*\*\*  $p < .001$

령, 혼인상태, 미성년 자녀 수, 교육수준), 경제적 특성(고용상태, 소득) 및 가계부 기록 행동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 재무비율의 달성을수준(0=미달성; 1=달성)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가계부 기록과 가계 재정의 안정성

먼저 가계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상자금지표와 부채부담지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부채부담지표(ratio 1)는 월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재무비율로, 전체 응답자의 81.5%인 815명이 달성하고 있었다. 종속변수는 매 월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혼인상태(기혼), 소득, 가계부 작성 행동이 부채부담지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업상태(무직)이 부채부담지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부채부담지표의 달성은 여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소비자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혼이며, 소득이 높고, 직장에 다니고 있을수록 여신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때 부채부담지표의 달성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특이할만한 점

은 가계부 기록 행동 또한 부채부담지표의 달성과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지출에 제한이 있는 가계일수록 가계부 기록 행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비상자금지표(ratio 2)는 최소 3개월 분의 생활금을 비상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재무비율로, 종속변수는 월 생활비의 3배를 비상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비상자금지표를 달성하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40.8%인 408명이었으며, 연령, 소득, 가계부 기록행동이 비상자금지표의 달성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의 경우, 유의수준이 높지만 계수값이 낮아 비상자금지표 달성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한 수준이었다.

### 2) 가계부 기록과 가계 재정의 성장성

다음으로 가계의 재무적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저축성향지표와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 노후대비저축성향지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저축성향지표(ratio 3)는 월 가계소득의 최소 10%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재무비율로, 전체 응답자의

52.6%인 526명이 달성하고 있었다. 종속변수는 매 월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고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성별, 직업상태, 소득, 가계부 기록 행동이 저축성향지표의 달성과 유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저축성향지표 달성 가능성은 남성의 약 1.5배였으며, 무직자의 저축성향지표 달성 가능성은 임금근로자의 0.7배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저축을 통해 가계의 위험을 줄이고 성장을 도모하는 행동은 남성보다 여성이, 무직자보다 임금근로자가 더 활발히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가계부 기록 행동 또한 저축성향지표의 달성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ratio 4)는 저축액의 30% 이상을 금융투자상품에 할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재무비율로, 전체 응답자의 14.7%인 147명이 달성하고 있었다. Yuh(2003)은 1997년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가계의 투자자산(주식, 채권, 보험, 계,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사채 등) 보유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투자자산 보유와 관련된 요인은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상태, 가계소득, 주택자산 등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의 달성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수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무관리행동에 해당하는 "가계부 기록 행동" 만이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의 달성 가능성을 약 1.8배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유의수준을  $P<.1$ 로 낮추었을 때 기혼자의 경우 미혼/비혼자에 비해 금융투자저축성향지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1.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ratio 5)는 저축액의 30% 이상을 노후준비에 할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재무비율로, 전체 응답자의 24.8%인 248명이 달성하고 있었다.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1-2012년)를 분석한 S. Kim(2014)에서는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39.6%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S. Kim(2014)가 보고한 결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등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속변수는 월 저축액의 30% 이상을 노후준비에 할애하고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 기록 행동이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의 달성을 약 1.4배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소득은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의 달

성 수준을 1.6배 향상시켰고, 연령의 경우 계수의 크기가 1에 가깝게 나타나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관리 행동 가운데에서도 가계부 기록 행동에 주목하였다. 또한 가계부 기록 행동의 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실제 가계의 재무비율지표 충족 여부에 가계부 기록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Y. Sung(2016)이 가계부 작성의 효과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 작성과 가계 재무비율지표 달성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 기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5점 만점으로 측정한 가계부 기록 행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조사대상자를 가계부를 기록하는 집단과 기록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여성일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계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가계부 기록 행동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까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가계부 기록 행동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통해 모든 재무비율에 있어서 가계부 기록 행동이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가계부를 기록하는 행동을 통해 가계의 객관적인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재무건전성 달성을 있어 가계부 기록 행동의 영향력이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부 기록이 가계가 재무건전성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재무교육에 참가할수록, 성별에서 남성이, 결혼상태에서 미혼이, 소득이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할수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계부 기록 행동 등을 포함한 재무관리행동과 소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C. Ahn & S. Joung, 2006). 다시 말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가계부 기록 행동이 소득 변수와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영향변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상자금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비상자금지표의 달성 수준은 40.8%에 불과한데, 이는 비상자금지표와 마찬가지로 안정성 지표에 해당하는 부채부담지표의 달성 수준이 81.5%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비상자금지표의 달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실직이나 질병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계가 3개월치 생활비를 즉석에서 조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상자금의 필요성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전체 소비자 가운데 약 19% 정도가 금리와 부동산 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소비자에 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한국가구페널조사의 6차년도(1998년) 조사 자료를 분석한 Y. Sung et al.(2004)에서 부채부담지표(부채상환액/소득액<.25)를 달성하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97.6%로 나타난 바 있다. 2014년 조사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 부채부담지표의 달성 수준은 81.5%로, 바꿔 말하자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18.5%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난 십여 년 사이의 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최소 10% 이상을 저축(보험 등 금융투자저축 포함)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저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재무비율인 저축성향지표는, 전체 응답자의 52.6%인 526명이 달성하고 있었다. 저축성향지표(저축액/소득>0.1)의 달성자 비율은 한국가구페널조사의 6차년도(1998년) 조사자료를 분석한 Y. Sung et al.(2004)에서는 54.2%, 노동페널 2차년도(2002년) 조사자료를 이용한 K. Huh and S. Han(2005)에서는 57%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의 저축성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의 달성 수준은 24.8%로, 저축성향지표를 달성하고 있는 소비자(52.6%)의 절반 정도만이 장기적 저축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즉, 소비자 네 명 가운데 두 명이 저축을 하고 있으며, 네 명 가운데 한 명만이 노후준비저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소비자, 무직자, 기혼 상태가 아닌 소비자의 노후대비저축이 더욱 미비한 수준이었는데 적극적인 가계부 기록행동이 노후준비저축성향지표의 달성을 약 1.4배 촉진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가계

부 기록을 통해 노후준비 저축을 실천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가계부 기록행동의 일차적인 효과는 가계지출을 통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가계수지지표의 달성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저축성향지표를 통해 가계수지를 간접적으로 가능해보는데 그쳤다. 둘째, 본 연구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고찰함에 있어 소득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자산부채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가계부 기록행동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가계부 기록 기간, 기록 형태(수기 vs. 전자기록부) 등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부 기록을 재무관리 행동의 일환으로 주목하고, 가계부 기록의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효과를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교육과 상담에 있어서 가계부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재무교육과 상담 현장에서는 교육 참가자와 내담자에게 가계부 기록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가계부 기록을 유도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계의 재무건전성 달성을 위해 교육, 상담 등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가계부 작성 등 일상적인 습관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가계부 기록은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재무관리행동이다. 가계부를 통해 가계의 현금흐름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준비 단계에서 가계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전자기록부의 보급과 더불어 가계부 작성이 더욱 용이해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가계부 작성이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효과성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가계재무관리 분야에서도 가계부 작성의 효과와 효과적인 가계부 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가계부 작성에 관한 온라인 컨텐츠 등과 전자 기록부 등 소비자의 개인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적인 방안이 보급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hn, C. H., & Joung, S. H. (2006). Articles: The effects of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on the financial behaviors and objective economic well-being.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7(2), 197-219.
- Bae, H. S., & Choe, H. C. (1996). Financial practices and financial satisfaction among rural housewives by family life cycle - Focusing on cash management practices, providing practices for children's educational expenditure, and preparing practice for elderly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67-179.
- Cha, K. W. (2007). Financial management patterns and financial knowledg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1), 1-20.
- Chae, E. S., & Sung, Y. A. (2000).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objective debt burden variables on the subjective debt burden for setting the guidelines for household debt manage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11), 1-12.
- Cho, D. -P., Yang, S. -J., & Bae, M. (2007). Effects of financial knowledge and financial management on o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nd su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2), 333-348.
- Choe, H. (2001). Investigation of the critical level of household debt burden using intertemporal resource alloc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5), 279-291.
- Choe, H. C., Lee, H. S., Yang, S. J., & Sung, Y. A. (2003). Development of the indexes and guidelines for evaluating financial status of the household using financial ratio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4(1), 99-121.
- Choe, H., Sung, Y. -A., Joo, S. -H., & Cha, K. -W. (2013). Financial status of korean middle class household based on income-expenditure statement and asset-liability statement. *Financial Planning Review*, 5(2), 87-116.
- Choi, Y. -J., & Choe, H. (1998). Factors affecting financial status of the rural middle-aged and old-aged Household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9(1), 43-54.
- Christian Home Editorial Department. (1980). Consciousness structure regarding household account book. *Christian Home*, 124-128.
-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Boston: Allyn & Bacon Inc.
- FPSB Korea. (2015). *Introduction to financial planning*. Seoul: FPSB Korea.
- Godwin, D. D., & Koonce, J. C. (1992). Cash flow management of low income newlywed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3, 1-43.
- Godwin, D. D. (199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newlyweds' cash flow managem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5, 161-190.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Proceedings, Third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3, 123-131.
- Huh, K. O., & Han, S. J. (2005). Households' financial status estimation with financial ratio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4(4), 613-629.
- Im, J. -B., Cho, M. -W., & Lee, Y. -H. (1998).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urb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3), 141-153.
- Jeong, M. -S., Kye, S. -J., & Kang, H. -K. (2008).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stability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nge-orientation of urban house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391-403.
- Jeong, S. L., & Jang, Y. O. (2007). The differences in wiv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variables related employment and income, and perceived economic instabilit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10), 59-71.
- Jeong, W. -Y., & Hwang, D. -S. (2002).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olidity of urban household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2), 115-130.
- Jeong, Y., Yu, J. -Y., Han, W. -K., Han, K. -S., & Oh, Y. -C. (2011). Consumption pattern analysis using the account book application.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Proceedings*, 38(2), 50-53.
- Kim, H. (2000). A study o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housewives

- in Pusan and Kyugnam region based on the systems approach.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1), 53-66.
- Kim, K. -J., Park, M. -S., & Jeong, W. -Y. (2002). The effects of household financial condition and management behavior performance on the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2), 21-28.
- Kim, S. M. (1993). Assessing the relations between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urban households: Based on the system theor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1(2), 195-207.
- Kim, S. -M. (2014). Financial soundness and retirement preparation of korea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4), 27-52.
- Kwon, H. (2015, December 16). "Household account book is best written by hand?" continued trend of increase in household account book purchase. Yonhapnews. Retrieved fr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5/020000000AKR20151215186200005.HTML?input=1195m>.
- Kye, S. J., & Jeong, M. S. (2007). The financial stability and satisfaction urban housewives'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3), 123-144.
- Lee, S. (2014). Effect of keeping a household account book on economic life of japanese in their 20s to 30s in a single-family household - using an internet survey of household account book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1), 115-140.
- Lee, S. -R. (2013). The consumption control policy and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of consumer culture in the 1970s. *Critical Studies on Modern Korean History*, 29, 137-182.
- Macromill-Embrain. (2014). *Household account book and price research*. Macromill Embrain.
- Macromill-Embrain Contents Operation Division. (2015). *Trend monitor 2015*. Seoul: Knowledge Nomad.
- Min, Y. -K., & Lee, M. -S. (2014).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rate of welfare state: focused on 23 OECD countries.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9(2), 91-115.
- Ok, K. -Y., & Park, J. -Y. (2013). A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life-cycle financial planning. *Journal of Happiness and Affluence Studies*, 2(2), 47-59.
- Park, M. H., Lee, S. S., & Bae, M. K. (1998).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software development(2).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2), 131-144.
- Sakamoto, K., & Omogawa, J. (2012). A study on keeping households' account book in the field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Single person households among young adults and households' account book: Insights from Internet survey*. Policy Research Paper, 4-13. Household Management Institute.
- Seo, I. -J. (2012). A study on cognition of credit card and shopping value based on the consumption orient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3), 105-118.
- Shin, H., & Hong, E. (2012). Exploration of the effect of urban households'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mmunication and financial stress on financial satisfaction. 2012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 Fall Conference, 445-449.
- Son, J. -Y., & Lee, K. -A. (2014). Consumer empowerment index of Korea. *Policy Research Paper*, 14-02, Korea Consumer Agency.
- Sung, Y. A. (2010).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holding of different purpos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1(3), 29-52.
- Sung, Y. A. (2016). Use of household ledger and its effect. *Financial Planning Review*, 9(1), 23-42.
- Sung, Y. A., Yang, S. J., Lee, H. S., & Choe, H. C. (2004). Analyzing households using the indexes for evaluating financial status developed based on the financial ratio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5(3), 155-171.
- Yang, S. -J., Joo, S. -H., Cha, K. -W., & Kim, M. (2013). A study of financial ratios guidelines for Korean households.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 Yang, J. (1997). *Analysis of Household's Financial Stat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Yoo, K. W. (2010). The impact of education expenditure on household saving and consumption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1(4),

135-160.

- Yoon, S. (2016). *Rich account book: Easiest investment technique to save money by using*. Seoul: Wisdomhouse.
- Yuh, Y. K. (2003). Determinants of households' investment assets. *Consumption Culture Study*, 6(1), 1-17.

Received: March 15. 2016

Revised: June 2. 2016

Accepted: June 13. 2016